

두권의 책은 모두 현행 자본주의의 절망적인 위기상황을 간파한다. 앞의 책이 '생태환경'의 관점이라면, 뒤의 책은 '경제'의 관점에서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대안을 모색한다. 하지만 서로 다른 관점 덕분에 이 책들을 통해 오늘날 자본주의의 지배논리와 흐름 그리고 그 결과와 미래를 포괄적으로 살필 수 있는 '눈' 하나를 얻은 듯하다.

책갈피 산책

《환경과 경제의 작은 역사》와 《공동체경제를 위하여》

위기에 빠진 세계 자본주의의 대안 모색해

현실문화연구/A5/208면/8500원
 녹색평론사/A5신/228면/7000원

박남정 | 출판칼럼니스트

《환경과 경제의 작은 역사》(존 벨라미 포스터, 김현구, 현실문화연구), 《공동체경제를 위하여》(이가옥 외, 녹색평론사)는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혼란을 단숨에 걷어버릴 만큼 명쾌하고 속 시원한 독후감을 주는 책이다.

'지금 우리는 벼랑에 있다.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책들의 공통적인 메시지. 두 책 모두 현재 세계 자본주의의 절망적인 위기상황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그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고 있다. 물론 앞의 책이 '생태환경의 관점'이라면 뒤의 책은 '경제'의 관점으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다른 관점 덕분에 이 두 권의 책을 통해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의 지배논리와 흐름 그리고 그 결과와 미래를 포괄적으로 살필 수 있는 '눈' 하나를 얻은 듯하다. 생태·환경, 그리고 경제라는 두 관점이야말로 오늘날 세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가장 유효한 측면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권의 책이 비슷한 시기에 출판됐다는 우연이 독자로서는 여간한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전지구적 규모의 환경위기에 관한 가장 탁월한 입문서

《환경과 경제의 작은 역사》는 '전지구적 규모의 환경위기에 관한 가장 탁월한 입문서'라는 평이 딱 들어맞는 책이다. 오늘날 위기라 일컬어지는 환경, 생태계의 문제들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됐는가를 간결하고도 쉽게 기술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오이겐의 오레건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지은이 존 벨라미 포스터는 "생물권 파괴 증대를 방지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유한한 세계 속에서의 '이윤지향적 경제팽창의 논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사회구조와 경제논리를 그대로 남겨둔 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운위하는 주류 환경주의적 관점으로는 절대로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지은이가 말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과격하게도 그것은 현재의 '세계화'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자연과 생산의 사회화'다. 지은이는 그 구체적 사례로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직접행동을 통한 환경운동과 풀뿌리 수준의 커뮤니티 보호운동을 들어 보인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인류의 진정한 미래는 인류역사와 우리의 사회적 생태적 생산관계를 재창조하려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행동하라'고 선동한다.

현재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전환점에 처해 있으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흐름에 반하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경제체제로 재편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동체경제를 위하여》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

이 책의 지은이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특징지어지는 현재 세계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대공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불가피한 이유들을 조목조목 고찰한다. 이 책에 따르면, '세계화'란 "선진국 자본가들이 무대 뒤에서 학자들을 사주하여 신자유주의를 논리적으로 지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자들은 그렇게 짜여진 각본에 따라 연극을 하고 있고 무대 위에서는 권력욕과 당선에 눈이 어두운 근시안적인 정치인과 관료들이 WTO, 세계은행, IMF 등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다.

현행 자본주의는 대공황 부를 것이라고 경고해

지은이들은 이런 현행 자본주의 체제는 대공황을 필연적으로 불러올 것이라고 말하고 대공황의 구체적 징후들과 대공황이 세계 경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한다. 이 책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붕괴시점에 도달한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 제도들이다. 사카르가 주창한 '프라우트 제도' (지역공동체 중심의 분산경제), 지역내 상호교환제도(레츠)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사카르의 사회순환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한 이 책은 자본주의의 속성과 그 논리의 허구를 흥미롭게 간파해보이고 있고 그 대안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설득력이나 감화는 앞의 책보다 덜한 느낌이다. 사카르의 순환이론이 생경한 탓도 있지만 이 책의 내용이 개괄적이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인 듯하다. ■

